

[바둑]

광주 KIXX “우승 넘보지 마”



〈광주 대표로 출전하는 이창호 9단〉

‘한국바둑리그’ 19일 개막...우승 상금 2억 7,000만원
 ‘이북 5도 티브로드’ 등 8개 지역팀 출전 자웅 겨뤄
 ‘이창호 완벽 부활’ 광주팀, 작년 부진 씻고 정상 도전

각 팀에서 6명씩 지명할 수 있는 제도다. 각 팀이 지난해 소속선수 중 한 명을 우선 지명할 수 있는데 광주는 이창호 9단을 보호 선수로 확정했다.

지난해 광주는 이창호의 부진 속에 8개 팀 중 7위를 기록하는 초라한 성적을 남겼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이창호가 올들어 전성기 못지 않는 실력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창호는 지난달까지 18연승을 달리며 완벽하게 재기에 성공했다. 제3기 원익배 십단전에서는 목석적 9단을 꺾고 ‘9단보다 잘 두는 9단’에게 주어지는 십단의 영예도 안았다.

백성호 감독은 “지난해에는 믿었던 이창호가 초반에 무너지면서 팀 전체가 부진했다”면서 “올해는 이창호를 중심으로 팀 분위기를 쇄신해 우승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는 지난 2006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강팀이었다. 당시 최철한, 박정상, 이재웅, 홍민표, 이영구, 최원웅으로 구성된 광주팀은 끈끈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우승 샵테인을 터뜨릴 수 있었다.

팀 선수 구성이 끝나면 예선전을 치르는데 3월 랭킹 1위부터 28위까지는 시드를 부여받

는다. 19일부터 21일까지 예선을 거쳐 12명의 선수를 선발해 결승을 치른다.

14일 현재 이정우 6단이 28위로 시드에 턱 걸이했고, 지난해 제일화재 2장이었던 배준희는 29위로 시드에서 탈락하면서 명암이 엇갈렸다. 예선을 면제받는 각 팀의 와일드카드(드래프트 이후에 추가 1명씩 선발하는 선수)



지난 2006년 한국바둑리그에서 우승한 광주팀이 샵테인을 터뜨리며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사이버오로 제공)

8명 등 총 48명이 한국리그에서 기량을 겨룬다. 본선 개막전은 4월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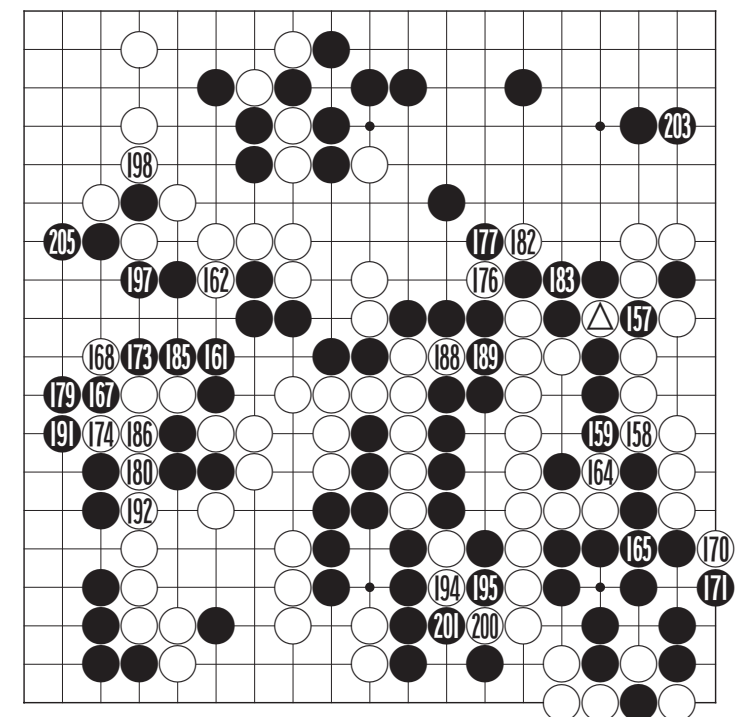
4월부터 11월까지 56경기 280국의 정규리그가 끝나면 상위 4개 팀이 포스트시즌에 진출해 최종 우승팀은 12월에 결정된다.

지난해와 달라진 특징은 5경기 다승제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먼저 3승을 올리더라도 잔여 대국을 하지 않았던 지난해와 달리 승패 결정과 상관없이 나머지 대국을 전부 치른다. 축구의 골득실과 같이 다득점으로 이기는 팀이 유리해졌다.

한편 2003년 기전 총 규모 2억4천만원(우승 상금 3천만원)으로 출발했던 한국리그는 해마다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여유와 절박함의 차이
 10보(157~205)
 결승전
 白 심재욱 6단 黑 정찬근 6단



흑 157로 따내 백으로서는 절체 절명의 패가 되어버렸다. 이에 반해 흑으로서는 여유가 있는 패. 백은 패를 지면 끝장이지만 흑은 적당한 대가만 받아내면 된다. 흑이 한결 여유가 있는 것이다.

이같은 여유와 절박함은 패감을 쓰는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흑은 슬슬 좌변을 건드려 가며 흑 161,167 등으로 수를 내가면서 패를 쓰는 반면 백은 182가 상당한 손해며(백이 패를 이겼을 때 183에 따내는 수가 없어졌다) 194도 두집 이상 손해를 보고 있다.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손해패 쓰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고수가 ‘올머 겨자먹기’로 손해패를 쓴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얘기가 된다.

반면 정찬근 6단 독무대라고 할 정도로 이쪽저쪽에서 이득을 보며 휘파람을 불어대고 있다. 주는 대로 우수리를 쫓기며 197까지 패가 아니라면 얻기 어려웠던 결과를 이끌어 내고 희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

결국 패를 양보하고 흑 203으로 우상귀에 막목을 치고 백이 패를 해소할 때 남아있는 큰 곳인 좌변 205에 내리선 것은 ‘끝났습니다’하는 선언과도 같은 수였다.

그런데 과연 이 정도로 흑의 승리가 확정되었을까. 심재욱 6단 표정에서는 아직도 희망의 빛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백 160,166,172,178,184,190,196,202-백스, 흑 163,169,175,181,187,193,199,204-157.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한국 남자군 ‘여성 바둑 삼국지’ 우승 눈 앞

박지은·이민진 내달 1일부터 정관장배 3차전

한국이 제6회 정관장배 세계여자바둑최강전 우승을 노리고 있다. 14일 한국기원은 “4월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이 대회 3차전에 박지은 9단, 이민진 5단이 출전한다”고 밝혔다.

당초 한국에서는 박지은, 이민진과 이하진 3단, 김세실 2단, 이슬아 초단이 출전했으나 1~2차전에서 이하진, 김세실, 이슬아가 탈락했다. 중국은 관웨이징 2단, 송풍우이 초단, 황관 초단이 탈락하고 루이나이웨이 9단, 탕이2단 등 2명이 남았다. 일본은 가토게이코 5단만 남아 우승에서 멀어진 상태.

일본은 1차전에서 아오키 8단이 3연승으로 기분 좋게 출발했으나 2차전에서 3명의 선수가 탈락했다. 가토 게이코 5단이 최종주자로 남았지만 루이나이웨이, 박지은 등을 모두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루이나이웨이를 제외한 모든 선수를 2단 이하의 신예로



〈박지은 9단〉 〈이민진 5단〉

출전시킨 중국은 1차전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2차전에서 3승을 거두며 한국을 추격했다. 한국은 4승을 거두며 우승을 노리고 있다.

이어지는 3차전은 4월 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며 이민진과 탕이 2단이 첫 경기를 갖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마지막 사신은 바로 나”

10일부터 현무왕전 예선전

4개의 신물을 차지하기 위해 프로기사들이 사투를 벌이는 제5회 전자랜드배 마지막 대회인 현무왕전의 막이 올랐다.

전자랜드배는 프로기사들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 백호·현무·청룡·주작 리그로 나뉘어 치러지고, 각 리그의 강자들이 ‘태왕’의 자리를 놓고 격돌하는 대회다. 현무왕전은 만 51세 이상, 백호왕전은 만 26 이상~만 50세 이하, 청룡왕전은 만25세 이하, 주작왕전은 여성 리그다.

이미 청룡왕전 한상훈 3단, 백

호왕전 이창호 9단, 주작왕전 이하진 3단이 우승했고, 현무왕전의 우승자만 가리면 된다.

지난 10일부터 53명이 참가하는 현무왕전 예선전에는 조훈현, 서봉수, 김수장 9단 등이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강력한 우승 후보인 조훈현과 서봉수가 결승에서 박매치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 두 기사는 2000년 이후에 10번을 만나 사이 좋게 5승씩을 나눴다. 2006년 1월 제3회 전자랜드배 현무부 4강에서 서봉수 9단이 1집반승으로 5연패를 끊은 뒤 대국이 없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미녀 기사 한해원, 폭소클럽서 ‘부자 되는법’ 강좌

미녀 프로기사 한해원 3단이 KBS 개그프로그램인 폭소클럽에 고정 출연하게 됐다.

한해원은 지난 달 27일 방영된 KBS 2TV 폭소 클럽2의 ‘부자 되세요’ 코너에 출연, 자신의 재테크 비결을 코믹하게 소개해 시청자들을 웃겼다.

한해원이 프로 기사로서는 특이하게 재테크 동호회를 만들어 5년이나 회장을 맡는 등 거의 전문가 수준이어서 캐스팅 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자식들한테 바랄게 뭐 있나?
모두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고마운거지!”

“요즘 효자가 별건가
그저 아무 탈없이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효자지”

당신의 이 한마디가 자식들에게 힘이 되고 건강이 됩니다.
당신의 이 마음처럼 당신께서도 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건강도 낳고, 건강이 행복을 키워줍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좋은 약을 만들게 합니다.
국제약품은 모든노들 생명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http://www.kunicepharm.co.kr

코멘자임 Q10 함유 종합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비타민 A, C, E 함유
- 동맥경화, 관상동맥질환, 심혈관질환 예방
- 눈의 건조감과 시력 저하 예방
-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고중성지방 예방
- 면역기능 강화
- 항노화, 피부미용 효과
- 항산화작용, DNA 손상 예방, 노화 지연 효과
- 노년성 질환 예방

아연의 보충
- 사포닌 함유